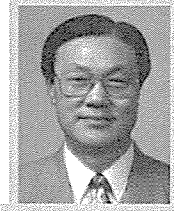


## 기록보존 의식



IPAK/자문위원 노연후

2000년 뉴 밀레니움의 초여름 5월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중대한 일을 하나를 맡았다. 바로 우리 협회의 20년 사 출판 준비를 맡아달라는 여인갑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평시에 늘 생각해왔고 느끼던 바가 있었기에 쾌히 승낙을 하였다. 막상 자료수집을 착수하고 보니 협회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빈약하기 이를 대 없었다. 불과 20년도 안된 기간인데 창립당시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국이 갖추어진 뒤에 부분도 없는 것이 훨씬 많았다. 이유야 그간 사무국직원이 자주 바뀌었고, 사무실도 많이 옮겨다니어 이사할 때마다 사무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마구 폐기했기 때문이란단.

비단 우리 협회 사무국뿐만이 아니다. 우리민족 전체가 언제부터인지 기록을 보존하기보다 없애는 것을 더 잘하는 습성을 갖게된 같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다. 지정학 적으로 중국과 소련이라는 큰 대국 동남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부 침략을 받아왔고 이에 대항하는 전쟁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내부 민족국가간에도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기록이 멸실 되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수 없이 많은 정치적 정변을 들고 있다. 즉 정적을 역모로 몰아 삼족을 멸하다 보니 이들과 관계가 있는 기록들은 철저히 없애버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먼 곳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으며,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현존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정부나 권력자의 공(적)기록만 남게 되었고 그것도 당시의 권력자의 유리한 점만을 남긴 것이 많다. 서민에 대한 기록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문화예술분야나 조금 남아있을 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위층 업적만 기록되어 있고 실무선인 하급관리들의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전통 문화 때문인지 지금도 우리는 기록을 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만들었다가도 이내 폐기해 버려 필요할 때 찾으면 기록이 없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정치시대에도 여전히 서민의 업적은 공인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말단 공무원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창안하여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공은 1차 적으로 그 기관의 장이 누리고, 국장 과장이 다음으로 차지하며, 실무자는 내부의 표창으로 끝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말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공무원 창안제도다 뭐다 하여 말하고 있으나 실제 하급직원이 훈장 포장을 받는 비율을 보면 허위임이

반증이 된다. 즉 우리속담에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기록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우리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가 한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고 정보화의 “정”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정보화시대가 오고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하는 세상이 되니 가장 앞장서서 자신들이 정보화시대를 만들었다고 떠들어대고 있고, 실제로 정보화사회를 개척하고 업적을 쌓은 전문가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이들 이름만 큼지막하게 역사적, 공 기록에 남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의 업적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협회의 20년 사의 준비를 맡았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기록보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였다.

개인이 자서전을 아무리 잘 써놓아도 그것은 사문서로 후세에 공인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 명의로 기록을 남겼을 때 이는 객관성이 인정되어 가치를 발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